

복되도다

레슬리 드 차베즈

그림자의 땀방울이 뒤섞이는 이 정화의 땅 위에서,  
4월 3일 열한 시를 지나, 다섯 시를 넘기며 서서히 흘러갈 때,  
만 명하고도 한 명의 영혼이 슬픔 속에 신음하며 끝없이 방황한다—  
평범한 이들은 의심과 갈망을 품은 채 일상은 계속된다.

멍해진 마음과 불안한 정신을 적시는 붉은 무더위 속에서,  
약속된 위안은 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보다.  
억지스러운 미소의 소란과 저항 속에서도,  
그대는 물 한 방울로도 되살릴 수 없는 메마른 기억 위를 기어갈 뿐이다.

목소리를 잃은 사원, 그 벽을 뚫고 나오는 메아리 속에서,  
믿는 자들의 영혼이 매달린다—비워지고, 닫히고, 선택조차 없이;  
그들의 갈증은 희미해져 가는 눈물과 사랑의 희미한 빛을 어루만지며,  
내세가 고동을 지니기를, 하늘로부터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며.

이 순간의 슬픔은 붙잡을 수 없는, 그러나 끈질긴 향으로 둘러싸여있고,  
그들의 손에는 판시<sup>1</sup>, 장난감, 휴대폰, 풍선, 그리고 기도문이 들려 있다.  
황폐와 적막으로 가득 차, 공허하고 귀먹은 웃음의 갈보리 언덕에서 거부된 채,  
길을 잃은 까마귀들이 모여드는 콘크리트 들판 위에는 독이 기다린다.

뒤틀린 당신의 어깨 위에는 백 년의 세월을 버틴 빛의 무게가 무겁고,  
태양 아래, 창백한 그림자가 피부 위에 영원한 자비를 새긴다;  
그대의 움직임은 억눌린 채, 제물은 늘 부족하기만 하며,  
신의 손길에 닿기 위한 희생만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피로에 지친 당신의 눈 속, 어둠의 깊이는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고,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로 더듬듯 갈림길을 위태롭게 걷는 눈먼 영혼처럼;  
그대처럼, 취기 어린 향기가 성금요일의 백색 의복을 물들이고,  
모든 걸음은 끈적하게, 길 위에서 너의 근원의 재의 중심을 향해

---

<sup>1</sup> 필리핀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

## Blessed Art Thou

Leslie de CHAVEZ

In this lustral ground where the sweat of shadows collides,  
April the third, past eleven, slowly slipping just after five,  
Ten thousand and one souls groan in grief, endlessly wandering—  
The ordinary persists, embraced by doubt and hushed longing.

Against the flushed mugginess of their dazed hearts and restless minds,  
It seems the pledged solace was never a path they could readily find;  
Despite reluctance and the tussle of crowded smiles they contrive,  
You crawl across arid recollections not a drop of water can revive.

Within the piercing echo of walls from a temple wanting of voice,  
Cling those souls who believe—emptied, shut, and without a choice;  
Their thirst fondly caresses the fading glimmer of tears and love,  
Beseeching the hereafter may carry a beat, a godsend from above.

The sorrow of this moment is wrapped in an elusive, clinging scent,  
Pancit<sup>2</sup>, toys, cellphones, balloons, and petitions in their hands are meant;  
Brimming with desolation, denied in the calvary of deaf laughter,  
Poison awaits upon the concrete field where stray crows muster.

Heavy is the hundred-year light weight upon your twisted shoulders;  
Beneath the sun, a pale shadow on your hide inking for mercy forever;  
Holding your movements restrained, your offerings forever not enough,  
Begging for sacrifices whose equal dares stretch to the divine cuff.

No longer within reach is the depth of darkness in your weary eyes,  
As a blind spirit teeters along crossroads, with oil-slicked brow that pries;  
Like you, an inebriated scent stains alabaster garments for Holy Friday,  
Each step is viscid, toward the nub of your original ash along the way.

---

<sup>2</sup> A representative Filipino noodle dish